

국내외 주요 뉴스 및 코멘트

PascoGas adds newbuilding at Hyundai Mipo in bid to tackle emissions

PascoGas가 현대미포조선에 40,000cbm급 중형 LPG선 추가 발주함. 지난 3월 발주의 옵션을 행사한 것으로, 선가는 척당 4,700만달러로 보도됨. (Tradewinds)

Shipyards hold fire in 'unstable' newbuilding market

중국 정부의 원자재 가격 통제 조치에도 조선업계는 사업재개에 주저하고 있다고 보도됨. 정부개입으로 중국철강가격은 7,400위안에서 6,500위안으로 12% 하락했지만, 업계는 철강가격이 다시 반등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보도됨. (Tradewinds)

현대일렉트릭, 친환경 축발전기 첫 수주

현대일렉트릭이 국내기업 중 처음으로 엔진 일체형 축발전기 2대를 수주함. 2022년부터 유럽 소재 선사 LPG운반선 2척에 탑재될 것이며, IMO 환경규제인 EEDI를 3~5% 개선할 수 있다고 보도됨. (선박뉴스)

Seaspan, 중국선박공업그룹에 컨테이너선 20척 발주

컨테이너 용대선업체 Seaspan이 중국선박공업그룹(CSSC)에 15억2천만달러 규모 네오파나막스 컨테이너선 20척을 발주함. 2023년 인도 예정으로, 선가는 척당 약 7,600만달러이며 methanol-ready선으로 건조된다고 보도됨. (선박뉴스)

현대베트남조선, 곧 PC 6척 수주

현대베트남조선(HVS)가 유럽 선주로부터 115,000dwt급 석유제품운반선 6척 수주 예정이라고 보도됨. 선가는 척당 5,300만달러로 책정됨. (선박뉴스)

국내 조선업계, 글로벌 수주 1위

Clarkson에 따르면 5월 야드별 수주잔고 한국 142만CGT(40척), 중국 88만CGT(37척), 일본 11만CGT(5척)으로 한국이 1위를 달성함. 1~5월 세계 누계 수주량은 1,907만CGT로 전년동기대비 179% 증가했다고 보도됨. (선박뉴스)